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보도일시	2011. 3. 29(화) 11:30		
배포일시	2011. 3. 29(화) 9:00	담당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담당과장	조원경 (2150-7610)	담당자	박성균큐 사무관(2150-7611) 김성은 사무관(2150-7612)

제목: 제1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29(화) 09:00,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0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방안’ 안전 등을 논의하였음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비 >

① 윤증현 장관은 최근 일본 대지진 발생과 중동 사태 진전에 따라
아직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세계경제에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일본 대지진 이후 신속히 「경제 분야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여 그동안 관련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해 왔음을 언급

② 윤증현 장관은 일본과 중동 사태는 추이에 따라 국제금융시장과
식량·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을 통해 우리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 특히, 중동은 우리의 최대 에너지 수입 대상 지역이자 해외
건설·플랜트 진출 지역이며, 일본은 우리의 인접국으로써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 관계부처/유관기관은 향후 중동과 일본 사태의 위험요인은
물론, 기회요인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 단기적 영향은 물론, 중장기적 영향까지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

<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신흥국과 협력 강화 >

- ① 윤증현 장관은 아울러, 자원이 빈약하고 소규모 개방경제로 대외적 충격에 취약한 우리경제를 근본적으로 외부충격에 강한 체질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함을 강조
- ② 우선 국내적으로는 독과점·담합 등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 서비스산업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체제를 개선하여, 시장경쟁과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토대로 상호 보완·협력함으로써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언급
- ③ 또한, 대외적으로는 FTA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지속적으로 선진화하고, 높은 성장잠재력과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신흥국으로 우리경제의 성장외연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특히, UAE 원전 수주에 이어 최근 유전개발 진출을 통해 현 정부 출범 전 4%이던 석유·가스 자주 개발률을 15% 수준까지 확보하게 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 신흥국과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곡물·에너지 등 안정적인 자원확보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가 함께 전략적 시각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을 언급

<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

① 한편, 윤증현 장관은 지난해 작황부진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의 농식품 수출이 58억불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것을 언급하며,

- 농어업 분야의 경우에도 그동안 주로 시장개방에 수세적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② 특히, 프랑스 와인, 뉴질랜드 키위 등 훌륭한 수출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가 상징으로서 문화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 외국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 경쟁력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는 새로운 수요 창출을 통해 농어업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은 물론,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 농촌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임을 강조

*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농식품 100억불 수출시 생산유발액은 126억불, 고용창출 효과는 5만 6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③ 윤증현 장관은 오늘 논의된 안건 중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방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안건으로,

- 농수산물식품부는 오늘 논의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방안」을 토대로 농어업 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그동안 우리의 최대 농식품 수출시장이었던 일본의 대지진 사태에 따른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별첨 1> 「국가간 미래전략 협력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과 자원확보(요약)」

※ <별첨 2>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 대변인

〈별첨 1〉 국가간 미래전략 협력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과 자원확보

1. UAE 아부다비 유전진출은 국가간 미래전략 협력 성과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안전 보고를 통해 금번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은 양국 미래전략기구(한국 :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곽승준), 아부다비 : 아부다비 미래전략기구(위원장 칼둔 알 무바라크)) 간에 미래전략 기획에 대한 공동 협력의 성과물이라는 보고.

<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 주요 내용 >

① 한·UAE 석유 분야 협력 MOU 체결

- 최소 10억 배럴 이상(가채 매장량 기준) UAE 아부다비 대형유전 참여
- 6백만 배럴의 아부다비 원유를 전략적 공동비축으로 사용
- 일일 30만배럴까지 아부다비 원유에 대한 우선 구매권 확보

② 3개 유전 개발 관련 주요 조건 계약서(HOT) 체결

- 아부다비 지역내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

양국은 그간 원전 수주 이후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한국의 미래전략 2040”과 “아부다비 2030”이라는 협력의 틀 내에서 협력 분야와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해 옴.

이러한 미래공동 성장 협력체계를 통해 원전·유전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 가시적 협력을 도출해 냈고, 양국은 에너지 분야 협력을 넘어 시스템 반도체, 금융, 콘텐츠·미디어 등 미래 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미래성장 동력 분야 협력 MOU 체결)

2. 미래전략 협력을 여타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미래위는 UAE 아부다비와는 미래 전략기구간 공동 협력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 기 체결한 에너지 분야의 협력 약속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가고 시스템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

특히, 에너지 분야 협력의 경우 실무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 도출해 나가기로 함

금일 회의를 통해 금번 아부다비와 같은 미래 전략 협력을 여타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음.

이를 위해 중동, 남미,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 등 미래전략 협력 가능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를 통해 후보지역을 선택하고 선정된 후보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협력 가능성과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나가기로 함.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방안

- 2011년 농림수산물 76억불 수출 달성 전략 -

2011. 3. 29



농림수산물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차 례

I. 농식품 수출 현황	1
II. 농식품 수출여건 및 전망	3
III. 농식품 수출확대 방안	4
1. 선진국형 수출 인프라 조성	5
2. 수출 경쟁력 확충	7
3. 전략적 시장 개척 지원	9
IV. 주요 국가별 추진 전략	11
〈참고〉 농식품 수출 관련 통계	13

I

농식품 수출 현황

□ '10년 농식품 수출액은 58.8억불(전년대비 22.3% ↑)로 국가 전체 수출액이 14% 감소한 '09년에 7% 증가한 데 이어 역대 최고 실적 달성

○ 1년 만에 10.7억불 이상 증가하여 과거 10억불 증가에 20년 이상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비약적 증가

* 농식품 수출액 : ('88) 32억불 → ('08) 45.0 → ('09) 48.1 → ('10) 58.8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009(A)		2010(B)		증감율(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체	2,634.3	4,809.3	3,104.0	5,880.0	17.8	22.3
농식품	1,982.1	3,298.1	2,311.0	4,081.8	16.6	23.8
- 농산물	1,753.7	2,990.8	2,079.2	3,721.7	18.6	24.4
- 축산물	59.7	139.6	59.2	146.1	△0.8	4.7
- 임산물	168.7	167.7	172.6	214.0	2.3	27.7
수산식품	652.2	1,511.2	793.0	1,798.2	21.6	19.0

* '10년 국가전체 수출액은 4,674억불로 전년대비 28.6% 증가

□ 냉해(4월)·태풍(8월)으로 인한 작황부진 등 열악한 수출여건 속에서도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고루 수출 증가

* 545개 품목 중 362개 수출증가 : 100% 이상(103품목), 50~100%(50), 30~50%(43)

○ 시설원에 및 양식 품목이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막걸리 등 한국적인 품목이 한류 등 국가 위상 제고에 힘입어 상승세

○ 김, 음료의 수출액이 최초로 1억불 초과(8개→10개)

<1억불 이상 수출품목>

◆ 10품목 ◆

								음료	102.6	10
						8품목		김	105.2	9
(백만불)		7품목				오징어	108.1	오징어	114.8	8
6품목		소주	124.1	소주	124.1	인삼	108.9	소주	123.1	7
라면	102.6	라면	115.7	오징어	126.5	소주	112.9	인삼	124.2	6
소주	118.7	오징어	123.8	설탕	127.7	라면	141.9	라면	157.2	5
커피조제품	123.4	설탕	137.8	라면	129.5	설탕	149.1	커피조제품	205.9	4
설탕	125.3	커피조제품	158.7	커피조제품	196.0	커피조제품	193.8	설탕	242.1	3
참치	239.6	참치	293.5	참치	293.2	참치	314.4	참치	374.4	2
귤련	334.9	귤련	397.1	귤련	453.0	귤련	466.9	귤련	536.5	1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품목수

□ 중국, 아세안 등 신흥시장 수출 대폭증가 및 주요국 고른 증가세

- 중국(39.3% ↑)과 아세안(38.1)은 최근 5년 수출 평균증가율이 20%를 상회하며 일본에 이은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

<주요 국가별 수출추이 및 비중>

(단위 : 백만불, %)

국가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ASEAN	EU
수출액	1,882.6	787.4	518.8	235.7	243.7	211.3	719.8	332.7
(비중)	(32.0)	(13.4)	(8.8)	(4.0)	(4.1)	(3.6)	(12.2)	(5.7)
전년대비	19.1	39.3	11.0	4.2	24.2	36.4	38.1	28.4
5년 평균	10.5	23.9	8.2	2.3	11.6	18.4	28.3	33.5

- 177개국 중 1억불 이상 수출국이 11개로 수출시장 다변화 진척

2006년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7개국				
2007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대만	태국	8개국			
2008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태국	대만	UAE	이라크	9개국		
2009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UAE	태국	대만	베트남			
2010년	일본	중국	미국	홍콩	러시아	UAE	대만	태국	베트남	이라크	필리핀	11개국
국가수	1	2	3	4	5	6	7	8	9	10	11	

◆ 다만, 대량 수출품목 부재, 수출업체의 영세성·생산자들의 수출마인드 부족, 일본시장에의 높은 의존도는 극복할 과제

- 프랑스의 와인(71억불), 노르웨이의 연어(31억불), 뉴질랜드의 키위(7억불) 같은 대규모 농식품 수출 품목 부재

- 수출액이 적은 다수 품목으로 수출을 확대시키는 것은 마케팅과 물류 지원 등 제반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에 장애 요인

-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80%가 수출액 100만달러 이내로 영세
* 3,117개 수출업체 중 100만불 이하 수출업체가 2,588개로 83%('09년 무역협회)

- 영세업체, 소규모 바이어들간 과당경쟁 사례가 빈번하고, 국내 시세에 따른 수출 중단 등 안정적 수출 공급기반 미흡

-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일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일본 경기나 환율 등 외부 여건 변화에 취약

II

농식품 수출 여건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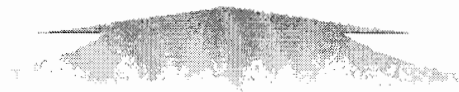
- (여건)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채산성 저하, 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수출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류 확산 등 우호적 여건도 공존
- 중동발 오일쇼크에 따른 큰 폭의 원유가격 상승과 냉해 등 이상 기온으로 시설원에 품목 등에 부정적인 영향
 - * 연초 두바이油 가격 전망(LG研) : 82.1(\$/bbl) ⇒ 3.27일 현재 109
 - 농식품 수출 1위 시장(10년 기준 18.8억불, 비중 32%)인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물류 장애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출 차질 우려
 - 화훼, 파프리카, 막걸리 등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 감소 전망
 - 채소류(토마토, 오이 등), 양식 수산물(굴, 미역, 김 등) 등 일본 생산 기반 피해 품목은 하반기 수출 증가 가능성도 전망
 - 다만,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과 한식세계화의 본격 추진과 더불어 국내 생산여건 개선 및 한국 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상승
- (전망)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11년 농식품 수출을 전년대비 21.5% 정도 증가한 71.5억불 수준으로 전망(10.11월말 307개 업체 설문조사)
- 최고 실적인 '10년도 수출증가율(22.3%) 재현을 가정하는 경우, 업체들의 전망과 유사한 71.9억불 수준 달성 가능
 - * '11.2월 말 기준 농식품 수출액은 9.4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2.9% 증가
- (목표) 업체들의 낙관적 전망, 증가 추세 및 '12년 100억불 달성을 위한 도전적인 목표 설정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

'11년 농식품 수출 목표 설정 : 76억불(전년 대비 29.3% 증가)

1

목 표

◆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전년 대비 29.3% 증가)



2

중점 추진 과제

**선진 수출
인프라 조성**

- ① 수출선도조직 육성 확대
- ② 수출 물류지원체계 개편
- ③ 수출지향형 안전관리 및 검역 지원
- ④ 수출 정보 제공 기능 강화

**글로벌
경쟁력 확충**

- ① 수출전략 품목 육성 및 집중 지원
- ② 고품질 이미지 구축 지원
- ③ 수출협의회 기능·역할 확대
- ④ 현장중심의 R&D 지원 강화

시장 개척 지원

- ① 한식세계화를 통한 수요 창출
-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마케팅 효과 극대화
- ③ 국내외 수출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 ④ 수출지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11년 총 7,123억원(융자 5,232억원, 보조 1,891억원) 지원 예정

1. 선진 수출 인프라 조성

□ (수출선도조직 육성) 수출업체와 생산자를 조직화한 '수출선도조직'을 활성화하여 고품질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 모델 확산

* '11년 현재 파프리카, 백합, 사과, 밤, 팡이버섯 등 총 18개 조직 운영 중

○ 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지원으로 조직화·규모화 유도

· (기존) 연차별 축소 지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120, 3년차 100)

⇒ (변경) 평가에 따른 차등 지원 : 최우수(150백만원), 우수(120), 일반(100)

○ 품목별로 선도조직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의 품목 단위의 선도조직을 부류별 조직으로 확대·통합 유도

* 팡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버섯류 조직으로, 장미와 백합을 화훼류조직으로 통합

<우수 사례 >

'10년 수출선도조직으로 선정된 KMC(팡이버섯수출연합조직)은 20여개 회원사가 품질 균일화를 통해 일본 최대유통매장(이온그룹) 신규 개척 성과 달성

□ (물류지원체계 개편) 인프라 지원 확대 및 물류비 보조 축소 등 시장개척·수출 확대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수출 농식품의 해외 물류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 지원 확대

- 수출업체들의 물류기업 냉동·냉장시설 임차 지원(20억원, 6개국 10개지역)

* 현지 냉동·냉장 창고 이용료의 80% 지원 ⇒ 스톡세일 활성화 통한 수출 확대

- 물류와 마케팅이 결합된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중국청도에 "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 구축 추진('11년 200억원 융자)

○ 해외 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단순 물류비 지원을 축소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 총액의 상한 축소

* (현행) 표준물류비의 45%이내(중앙 15, 지자체 30) → (개선안) 35(중앙 10, 지자체 25)

- 물류비 지원 여건을 강화하여 지원 대상을 축소(단일부류 통합 20만불 이상) 하고, 업체의 수출신장률을 평가하여 차등(4등급) 지원

□ (안전관리 및 검역 지원) 사전 예방적 수출농산물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공세적 수입 장벽 대응

- 중앙안전성협의회 중심의 일원화된 수출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하여 안전 관련 농식품 비관세 장벽 해소를 주도적으로 추진
 - * 농촌진흥청(교육), 품관원(안전성검사), 식물검역원(검역), aT(수출단지 관리)
 - 수출 농산물의 Global GAP 인증 지원 및 안전지킴이 채용 확대
 - 현장중심의 수출교육을 통해 안전성·검역에 대한 인지도 제고
- 수출국의 농약잔류기준 설정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국내 수요 조사와 국내외 설정기준 마련 지원 강화
- 검역 여건 개선이 필요한 품목별로 해당 국 검역관을 초청하여, 정부차원의 개선 촉구 등 수출 장벽 해소
 - * 미국(배), 대만(사과, 배, 복숭아), 기타(베트남, 태국, 인니, 대만, 싱가포르 등)

□ (정보인프라 강화) FTA 체결 및 경쟁심화 등에 대비하여 현안 분석, 체계화된 정보 DB 구축 및 e-marketing 기반 강화

- 소비패턴, 유통실태 등 주요 국가별·품목별 심층 정보 조사·분석
 - * 수출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해 정기 및 수시 이슈 분석·제공
- FTA체결확대에 따라 협상국별 수출입 DB구축 및 수출 경쟁력 분석
 - * 13개국 5경제권 수출입 DB구축 및 주요품목 수출경쟁력 분석을 통한 수출확대
- 사이버수출 전용앱 개발 등 농식품 수출 인프라 지원 강화
 - AgroTrade(www.agrotrade.net)를 통해 80개 업체 인터넷 업무 지원
 - 모바일 정보제공 시스템을 신규로 구축 및 수출입 통계 서비스 개선
- 기 체결된 FTA에 따른 관세 인하 결과 등을 적극 홍보

2. 글로벌 경쟁력 확충

□ (전략품목 선정·육성) 새롭게 수출전략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 특성과 타겟 시장별 진입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추진

○ 수출규모, 성장 가능성, 관리 수단 등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기존의 전략품목을 평가하여 선정·지원

* 참치, 고등어, 오징어 기존의 전략품목(40개)은 개수가 많고, 상당수가 지원 수단 부재

전략품목 선정(안) : 18개 품목

김치, 인삼, 파프리카, 딸기, 유자차, 사과, 팡이버섯, 새송이버섯, 장미, 국화, 음료, 막걸리, 삼계탕, BBQ소스, 김, 전복, 굴, 넙치

○ 박람회, 판촉, 현지 홍보 및 정보 조사 등 해외시장개척사업을 전략품목 중심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인 지원 추진

- 제품의 현지화·시장개척·시장정착 등 시장 진입단계별로 지원내용을 차별화하고 업체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추진

□ (브랜드 지원) 농산물 공동브랜드(whimori)를 수출선도조직과 연계한 한국 농산물 대표브랜드로 육성하여 고품질 이미지 구축

○ 지원내용 등이 유사한 휘모리 사업과 수출선도조직사업 통합 추진

* 휘모리 6품목 : 파프리카, 장미, 국화, 배, 새송이버섯, 김치

* 선도조직 16품목 18개조직: 파프리카, 장미, 국화, 새송이버섯, 김치, 백합, 팡이버섯, 여름딸기, 겨울딸기, 선인장, 토마토, 멜론, 유자차, 단감, 사과, 밤

○ 사업 매뉴얼·홈페이지 제작 운영 등 휘모리 브랜드가치 제고

-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산·공급하여 소비를 지향하는 고품격 신선 농산물로 인식되도록 적극 홍보

-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점증적으로 민간 이용업체들의 홍보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 추진

□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 지원 및 품목대표조직과의 연계 등을 통해 마케팅보드로의 발전을 지원하고 수출현안 자율해결 역량 강화

- 현재 16개인 수출협의회를 추가 구성하여 '11년 말까지 총 20개 수출협의회로 확대 * 딸기, 냉동식품, 유제품 등 추가 검토

구분	4품목 (‘10년 설립)				4품목 (‘09년 설립)				8품목 (‘08년 설립)							
	채 종 자	막 걸 리	사 과	밤	식 품 기 업	김	단 감	쌀	파 프 리 카	버 섯	인 삼	김 치	전 통 주	유 자 차	배	양 란
회원수 (469)	21	21	28	27	25	19	12	23	24	25	98	46	26	33	49	19

- 덤핑과 같은 시장교란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가격, 시기 등) 마련 및 품목별 특성에 맞는 공동 사업 추진 지원
-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통한 FTA체결국 시장 개척 공동대응
 - * 식품기업(한·미, 한·EU), 과실류(한·아세안) 협의회 공동 시장개척
 - * FTA 기 체결국 및 예정국 목표 시장의 시장 개척 정보 공유 및 공동 마케팅 추진

□ (R&D) 수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고,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반 구축 추진

- 식품 R&D체계를 제품화 기술개발 위주에서 개발된 기술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수출 지원 강화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11년 248억원('10년 대비 35.6% 증가)
- 3년 차인 수출연구사업단(9개)을 활성화하여 수출 현장 장애요인을 기술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 * 9개 사업단 : 닭, 배, 사과, 백합, 감귤, 단감, 버섯, 과채류, 토마토
- 식품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집적된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조성 (익산, '09~'15)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 지원센터 설립('11.2월), 단지개발계획수립(LH공사) 및 3대 R&D센터 (기능성평가·품질안전·식품패키징) 설계 등 기업유치·지원체계 구축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에이전시(주한유럽상공회의소 등) 활용 등을 통해 해외 선도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3. 시장 개척 지원

□ **(한식세계화)** 한국 농식품의 가치를 제고 위한 **고급화·대중화 전략 병행 및 민간단체 활성화**로 한국 농식품의 수요 창출

※ **(전략지역)** 미국, 아시아, **(전략품목)** 비빔밥, 불고기 등 기업진출품목

○ **해외 한식당협의회** 역할 강화, **한식 우수성 연구**를 통해 인프라 구축

- 협의회 10대 개선과제(서비스·환경·위생개선, 공동구매 등) 추진
- 고(古) 조리서 해석 및 조리법 현대화, 인삼·천일염 우수성 연구

○ **단기 심화 교육 및 한식조리 특성화 학교** 지원을 통한 인력 양성

* 향토음식 교육(300여명), 해외 한식당 경영·조리법 교육(10개 도시) 등

○ **관광·자동차 등 세계 유수의 박람회 등과 연계 다각적인 홍보** 추진

* '11년 홍보 슬로건("Discover Korea's Delicious Secret" : 한식의 맛있는 비밀을 찾아라!)을 국내외 홍보에 통일성 있게 활용

□ **(마케팅 지원)** 규모화·통합화 및 틈새시장 공략을 병행하여 시장 특성에 따라 **효과성 높은 마케팅 수단을 선택**하여 집중 지원

○ 한국관 참가 규모를 확대하고 수출상담회 등 통합마케팅 전개

* ('10) 14개국, 17회 / 평균 300㎡, 21업체 → ('11) 9, 11 / 450㎡, 31

- **벤더박람회** 참가 확대(4회→8) 현지 대형유통업체 진출 지원
- 개별적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 확대**(101회→168) 및 해외aT 추천 **유망박람회 신규참가**(4회)로 신규시장 개척 강화

○ 해외 대형유통업체 연계 **대규모 장기관측** 강화로 대량 수출 루트 발굴

○ 지역별 타깃 및 방향 설정을 통한 **전략적 미디어 홍보** 실시

* 한국 식품 통합이미지 TV홍보(일본·중국), 신흥시장개척 로드쇼(중국 2회) 등

□ (유관기관 협력) 수출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농식품 수출 확대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외교통상부와 공동 추진 중인 재외공관 연계 농식품 홍보사업을 활용 155개 재외공관의 농식품 수출 마케팅 지원 기능 극대화

* '11년에는 총 50개 공관에서 실시하는 농식품 홍보 행사 지원

- 신선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 aT(해외 마케팅)·농진청(농약잔류기준설정·기술개발·교육), 품관원·수검원(품질·안전관리), 식검·검역원(검역협상·질병관리) 등 지원 네트워크 구축

- 농식품부 해외시장개척사업과 지자체 판촉행사 등을 연계하여 행사의 규모화·효율화 도모

- 행사성격·지역·시기가 유사한 사업은 연계하고, 연계가 어려운 사업은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규모화 하여 별도 추진

- 관광공사, 중소기업청, KOTRA, 상공회의소 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사업 간 연계 추진

* FTA 효과 활용(상공회의소)·한류 활용 농식품 홍보(관광공사), 농공상 융합 기업 지원(중소기업청) 해외 aT 미설치 국가 정보·마케팅 지원(KOTRA),

□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품목별·업체별 현황, 바이어 DB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aT, 7월)하여 업체별 맞춤형 수출 지원 추진

〈 중점 추진 방향 〉

- ◆ 농식품부·aT의 수출지원, 업체 수출실적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업체정보, 각종 금전·비금전적 지원, 업체 사업참여·수출실적 연계
- ◆ aT⇔수출업체간 사업정보 공유체제 강화
 - 수출지원사업정보 On-line 공유, 정보갱신시 메일·SMS통보
- ◆ 수출지원 정책효과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수출업체 DB 구축에 그치지 않고 수출지원사업 전반에 대해 진단하고, 업무프로세스를 효율화 하는 계기로 활용

IV

주요 국가별 추진 전략

◇ FTA체결 등 복잡해진 무역환경을 고려, 국가·지역별 전략 수립

○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충

□ (일본) 한류 저변 확대에 따른 대량 수출 수요 발굴 및 지진 피해에 따른 수출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

○ 외식체인 연계한 한국 식자재 메뉴화, 기능성 식품 수요 발굴, 소매 유통을 선도하는 대형 편의점 공략 등 신규 수요처 발굴

○ 지진의 영향을 모니터링하여 영향을 받는 품목 수출지원 추진

- 일본 생산기반이 훼손된 품목에 대한 한국산 대체공급 추진

* 채소(토마토, 딸기, 오이 등), 과일(사과, 포도 등), 양식수산물(굴, 미역, 김 등)

- 일본산 수입 기피에 따른 경쟁국시장 수출 확대 추진

* 일본의 수출액('10) : 53억불(홍콩12억불, 미국 7.4, 대만 7.4, 중국, 6.3 동남아 4개국 6)

* 한국과 경합품목 : 사과, 배, 감, 포도, 딸기, 가공식품(면류, 과자류 등)

□ (미국) 판매망을 장악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략 강화

○ 현지인의 소비 촉진을 위해 MOU 체결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한 홍보전 추진 및 벤더박람회·핵심 바이어전문쇼 등 참가 확대

* 수출업체를 대리, 위탁품목의 마케팅·수출 상담을 통해 유통업체 신규 입대

○ 식품기업 수출협의회와의 공동 사업 등을 활용,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창출을 집중적으로 지원

□ (중국) 중서부 내륙지방으로 시장 확대 위한 수출 여건 개선에 집중

○ 검역·통관의 투명성 제고 요구 등 진입규제 해소 적극 추진

○ 중국내 수출전진기지를 건설, 냉장·냉동창고 등 저온유통 및 시장조사, 제품전시, 상담, 스톡세일 등 마케팅 거점 활용('12.6월 가동)

* 건립·운영방식 등 연구용역(~4월), 5월 이후 토지임차, 설계 등 추진

○ SIAL China*(5월) 등을 활용, 한국상품의 고품질·안전 이미지 홍보 강화

* 개막식 등 우리부 고위급 참석 및 주빈국 지위로 식문화홍보, 학술세미나, 이벤트 등 전개

□ **(동남아) 유망품목***에 대한 **신규 마케팅 대상·지역과 루트 집중 개척**

* 인삼(베트남), 딸기(싱가폴, 말레이), 단감(말레이), 가공식품(전체) 등

- 국내 수출업체 대상으로 **할랄(Halal) 인증**에 대한 홍보 강화로 동남아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이슬람계 신규 수요처 창출
- 동말레이시아, 유명 **휴양지** 등으로 시장 개척 대상을 확대하고, 유명 리조트·호텔과 연계한 **마케팅 활동** 전개

□ **(러시아) 고소득층 선호품목 집중 공략, 극동권 직수입 확대**
등을 통한 신규 시장 진입에 필요한 동력 확보에 주력

- 높은 부대 비용(유통업체 입점료, 통관 비용, 물류비용)을 부담하고도 수익 창출 가능 품목(장미, 차·음료류)의 홍보마케팅 등 집중 지원

* 한국산 이미지 광고, 현지화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유통업체 입점료 부담 강구 등

- 식문화가 유사한 아시아형 시장인 **극동권 수출 지원 확대**

□ **(EU) 국제기구 및 재외공관 연계 홍보행사, 대형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및 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한 **인지도 제고**에 중점

- 재외공관·국제기구가 많은 특성을 이용, 재외공관 연계 행사를 통한 현지 주류 계층 **입맛 길들이기** 등 홍보 활성화

* '10년의 경우 전체 재외공관 연계 홍보 행사 52회 중 19회를 유럽에 배분

- 추가로 현지 **대형 유통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실시하여 이머징 마켓인 **동유럽으로 시장 확대** 추진

* 현지 인기를 확보한 한국 캐릭터 'PUKKA'를 활용 하는 방안 등 추진

- 유망품목의 **전문 박람회 개별 참가**에 대한 지원 확대

* 화훼 박람회·GIFT 등 소품 박람회(접목 선인장), 수산박람회(게살 등 수산물)

* 현지 타민족 축제 연계 아시안, 히스패닉계 타깃 시장 홍보 지원 등

참고

농림수산물식품 수출 현황

① 연도별 농림수산물식품 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10/0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1,894	3,415	1,802	3,395	2,051	3,759	2,211	4,496	2,634	4,809	3,104	5,880	17.8	22.3
○ 농식품	1,481	2,221	1,434	2,304	1,514	2,532	1,626	3,048	1,982	3,298	2,311	4,082	16.6	23.8
- 신선	221	608	184	526	199	597	253	675	309	739	329	874	6.2	18.2
- 가공	1,260	1,613	1,250	1,778	1,315	1,935	1,373	2,373	1,673	2,559	1,982	3,208	18.5	25.4
○ 수산물	413	1,194	368	1,091	537	1,227	585	1,448	652	1,511	793	1,798	21.6	19.0

② 주요 수출품목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10/0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 김치	32	93	26	70	26	75	27	85	29	89	30	98	4.1	10.0
- 인삼	2	83	2	89	2	92	2	97	3	109	3	124	6.2	14.0
- 배	25	56	16	37	20	49	24	47	27	54	23	54	△15.2	0.6
- 파프리카	19	57	15	46	14	47	17	54	18	53	16	58	△8.8	9.4
- 양란	4	19	2	11	4	25	4	26	3	17	3	20	18.9	22.7
- 참치	92	226	100	228	114	293	114	293	178	314	334	374	87.3	19.1
- 오징어	65	102	37	47	156	124	151	127	101	108	60	115	△40.4	6.2
- 김	8	54	7	62	7	60	8	75	9	82	10	105	2.9	29.1

③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10/09)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2,211.2	4,496.5	2,634.3	4,809.3	3,104.0	5,880.0	17.8	22.3
일본	573.9	1,438.4	687.5	1,580.4	961.9	1,882.6	39.9	19.1
미국	158.0	449.2	175.5	467.3	188.8	518.8	7.6	11.0
중국	376.1	539.4	414.8	565.2	474.3	787.4	14.3	39.3
홍콩	169.3	172.3	177.5	196.2	194.0	243.7	9.3	24.2
러시아	122.6	293.4	100.8	226.3	116.7	235.7	15.7	4.2
대만	66.3	125.7	86.4	154.8	118.0	211.3	36.5	36.4
A S E A N	331.4	451.3	486.9	521.1	529.8	719.8	8.8	38.1
E U	116.6	245.6	133.2	259.1	161.6	332.7	21.3	28.4
기타	297.0	781.2	371.7	838.9	358.9	948.0	△3.4	13.0

4 2010년 농림수산물 수출실적

부류별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08년	2009년		2010년		증감율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4,496.5	2,634.3	4,809.3	3,104.0	5,880.0	17.8	22.3
○ 농식품	3,048.2	1,982.1	3,298.1	2,311.0	4,081.8	16.6	23.8
<신선>	675.0	309.2	739.3	328.6	873.9	6.2	18.2
- 채소류	148.6	78.8	161.5	66.8	178.4	△15.3	10.4
- 김 치	85.3	28.5	89.4	29.7	98.4	4.1	10.0
- 인삼류	97.2	3.1	108.9	3.3	124.2	6.2	14.0
- 화훼류	76.2	10.9	77.2	12.5	103.1	14.7	33.5
- 과일류	154.9	118.0	172.6	133.2	195.4	12.9	13.2
- 버섯류	23.2	16.2	33.0	21.2	38.9	30.6	17.7
- 돼지고기	17.7	12.5	11.6	0.5	0.8	△96.2	△93.3
- 가금육류	12.9	12.4	18.4	22.2	31.8	79.2	73.2
- 산림부산물	59.0	28.8	66.7	39.2	102.9	35.9	54.2
<가공>	2,373.2	1,672.9	2,558.8	1,982.4	3,207.9	18.5	25.4
- 가공식품	2,313.7	1,533.0	2,457.8	1,849.0	3,096.7	20.6	26.0
* 면 류	200.3	66.4	207.3	73.6	240.1	10.9	15.8
* 소스류	121.7	48.8	109.5	55.0	129.7	12.6	18.5
* 주 류	236.1	254.2	242.1	321.2	313.3	26.3	29.4
* 과자류	248.0	89.6	249.6	97.9	290.5	9.3	16.4
* 연초류	463.9	50.8	478.1	49.0	542.1	△3.4	13.4
* 유제품	49.1	19.6	54.2	18.3	58.0	△6.7	7.0
- 목 재 류	59.5	139.9	101.0	133.4	111.2	△4.6	10.2
○ 수산물	1,448.3	652.2	1,511.2	793.0	1,798.2	21.6	19.0
- 어 류	864.7	407.6	929.3	558.0	1,096.9	36.9	18.0
- 연체동물	280.2	133.7	284.6	94.6	332.1	△29.3	16.7
- 해조류	145.4	21.8	139.4	27.8	171.9	27.3	23.3
- 갑각류	76.3	16.0	71.0	14.2	77.2	△11.3	8.8
- 기 타	81.7	73.1	86.9	98.4	120.1	34.7	38.0

국가별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 분	'08년	2009년		2010년		증감률		비 중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전 체	4,496.5	2,634.3	4,809.3	3,104.0	5,880.0	17.8	22.3	100.0
일본	1,438.4	687.5	1,580.4	961.9	1,882.6	39.9	19.1	32.0
중국	539.4	414.8	565.2	474.3	787.4	14.3	39.3	13.4
미국	449.2	175.5	467.3	188.8	518.8	7.6	11.0	8.8
러시아	293.4	100.8	226.3	116.7	235.7	15.7	4.2	4.0
홍콩	172.3	177.5	196.2	194.0	243.7	9.3	24.2	4.1
대만	125.7	86.4	154.8	118.0	211.3	36.5	36.4	3.6
A S E A N	451.3	486.9	521.1	529.8	719.8	8.8	38.1	12.2
E U	245.6	133.2	259.1	161.6	332.7	21.3	28.4	5.7
기타	781.2	371.7	838.9	358.9	948.0	△3.4	13.0	16.1
- 오세아니아	179.2	109.1	204.9	96.4	200.8	△11.6	△2.0	3.4
- GCC(중동)	145.7	39.6	182.5	41.0	246.9	3.6	35.3	4.2
- 남미	19.4	18.0	27.4	25.3	46.5	40.9	69.6	0.8
- 이라크	106.6	13.3	73.5	14.3	115.0	7.5	56.3	2.0
- 캐나다	39.1	23.6	44.5	25.4	52.6	7.5	18.3	0.9